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이현숙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Impact of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e Behavior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Mediating Factors

Hyun-Suk Lee

Professor, 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각각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AMOS를 이용한 경로 분석결과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간접효과가 있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보건행정,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ediu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result of a path analysis using AMOS indicated that their major satisfaction level is found to have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in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hi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s directly effective against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exerted an impact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ediu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refore, to improve the level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ystematic and detailed programs and effective plans to improve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ill be necessary.

Key Words :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Major Satisfaction, Self 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Hyun-suk Lee(taihun02@naver.com)

Received September 28, 2018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June 13, 2019
Published Jul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 결정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1],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는 대학생에게 진로 결정은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이다[2]. 현대사회에서 급변하는 직업 가치관과 다양한 직업의 존재로 인하여 자신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의지와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3].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적성 및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로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을 선택하게 되므로 대학 생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졸업 후의 진로 선택과 결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4]. 대학에서의 전공은 졸업 이후 직장생활 적응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5],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생활과 졸업 후의 진로 준비 및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6].

전공만족도는 '전공을 선택한 후 학습의 경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7],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8], 학습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학업성취도가 높고 대학 생활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9]. 전공학과에 만족하는 대학생이 불만족한 대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데[10], 전공만족도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1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12,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 (1977, 1997)[14,15]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한 자기효능감을 진로 영역으로 확장시켜 적용한 개념으로[16], 진로의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행동이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또는 신념을 의미하며[17,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대학 생활과 학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게 된다[19].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20-22], 진로결정수준이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장래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서 진로결정 수준과 확고한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말한다[23].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계획하며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24], 대학생이 졸업한 이후 어떠한 직업을 갖는가는 자아실현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이므로 진로결정은 개인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25]. 진로준비행동은 지적 능력, 흥미, 적성 및 성격, 진로 결정수준과 같은 인지적 태도 요인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25],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따거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며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 등을 투자하는 활동 등을 의미하며 [26],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세계로 성공적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대학생활 동안 진로준비행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7].

한편 선행 연구를 보면 공학전공[11], 관광전공[12], 간호학전공[13,22,28], 항공서비스전공[20], 비서학전공[21], 의료관광전공[29], 스포츠산업경영전공[30], 경호학전공[31], 실용음악전공[32], 치위생전공[33]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와 관련한 여러 변인 간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전공만족도와 진로 선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34]가 있고, 이외에는 전공만족도와 다양한 진로 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에 소재하고 있는 3년제와 4년제 대학의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였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개인정보 및 자료 보호와 거부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만 무기명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즉시 회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표본은 t-검정 및 ANOVA와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25, 검정력 .95, 유의값 .05로 산출된 F기각역 2.637, 총표본크기 280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88명(96.0%)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된 288명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졸업반 여부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하였고,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구분하였고, 졸업반 여부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2.2.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를 재구성한 장광원(2012)[31]의 전공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각문항을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공만족도 관련 문항의 Cronbach's α 는 기존 연구[35]에서는 0.92였고, 본 조사에서는 .91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Taylor와 Bets(1983)[17]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인 CEMESSES-SF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36]가 타당화 시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련 문항의 Cronbach's α 는 기존 연구[32]에서는 0.92였고 본 조사에서는 .94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2.4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 측정 도구는 고향자(1992)[37]가 Osipow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을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 관련 문항의 Cronbach's α 는 기존 연구[33]에서는 0.88이었고 본 조사에서는 .90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2.5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 도구는 김봉환(1997)[2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 관련 문항의 Cronbach's α 는 기존 연구[23]에서는 .84였고, 본 조사에서는 .88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분산분석결과 유의한 경우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사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입력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71명(24.7%), 여학생 217명(75.3%)이며, 학년은 1학년 51명(17.7%), 2학년 61명(21.2%), 3학년 152명(52.8%), 4학년 24명(8.3%)이고 졸업반 여부는 예 153명(53.1%), 아니오 135명(46.9%)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88)

	Categories	N	%
Gender	Male	71	24.7
	Female	217	75.3
Grade	1	51	17.7
	2	61	21.2
	3	152	52.8
	4	24	8.3
Graduation Class	Yes	153	53.1
	No	135	46.9

Table 2. Dif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	SD	M	SD	M	SD	M	SD
Gender	Male	3.56	.51	3.45	.51	3.27	.58	2.84	.71
	Female	3.32	.48	3.28	.49	3.07	.53	2.74	.53
t	(p)	3.54	(p<.001)	2.61	(.009**)	2.66	(.008**)	1.13	(.262)
Grade	1학년	3.47	.48	3.28	.49	3.15	.54	2.71a,b	.53
	2학년	3.45	.55	3.29	.50	3.14	.55	2.56a	.60
	3학년	3.32	.46	3.34	.51	3.10	.54	2.82a,b	.53
	4학년	3.37	.59	3.39	.51	3.17	.61	3.01b	.76
F	(p)	1.82	(.143)	.40	(.759)	.23	(.880)	4.80	(.003**)
Graduation Class	Yes	3.36	.46	3.37	.49	3.15	.56	2.87	.57
	No	3.40	.54	3.27	.51	3.09	.54	2.63	.56
F	(p)	-.60	(.546)	1.76	(.079)	.94	(.349)	3.61	(p<.001)

** : p<0.01

문자 a<b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Scheffe의 동일집단군으로 분석한 결과(p<.05), 평균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파악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결과 유의한 경우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는 성별(t=3.54,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과 졸업반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성별(t=2.61, p<.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과 졸업반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결정수준 역시 성별(t=2.66, p<.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과 졸업반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은 학년(F=4.80, p<.01)과 졸업반 여부(t=3.61,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r=.45, p<.01),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r=.41, p<.01),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r=.24,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r=.55, 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288)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1	.45** (p<.001)	.41** (p<.001)	.24** (p<.001)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45** (p<.001)	1	.55** (p<.001)	.47** (p<.001)
Career Decision Level	.41** (p<.001)	.55** (p<.001)	1	.2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4** (p<.001)	.47** (p<.001)	.20** (p<.001)	1

*** p<.001

상관(r=.47,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r=.20,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3.4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Variables of Career Decision Level

variables	B	S	β	t	p	VIF	
(Constant)	.72	.21		3.42	.001		F=71.740** R ² =.34 Adj R ² =.33 DW=2.21
Major Satisfaction	.22	.06	.20	3.69	.000***	1.26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50	.06	.46	8.49	.000***	1.26	

* : p<0.05 , ** : p<0.01, *** : p<0.001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71.74,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²)는 .33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에 전공만족도(B=.22, t=3.69, p<.001)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B=.50, t=8.49, p<.001)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결정수준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 =.46)이 전공만족도(β =.20)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Variable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90	.24		3.75	.000		F=40.50*** R ² =.22 Adj R ² =.22 DW=1.89
Major Satisfaction	.04	.07	.03	.53	.60	1.26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53	.07	.46	7.77	.000***	1.26	

* : p<0.05 , ** : p<0.01, *** : p<0.001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0.50,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²)는 .22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53, t=7.77, p<.001)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B=.04, t=.53, p>.05)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 =.46)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3.6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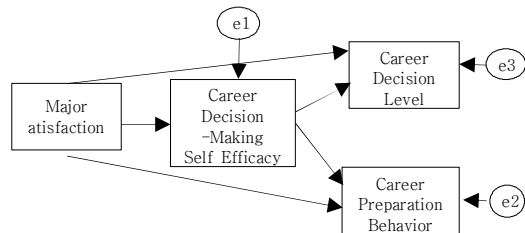


Fig. 1. Structure Model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 Table 6에서 제시한 것처럼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절대적합지수는 χ^2 값($\chi^2=1.94, df=1$)의 p 값이 .16으로 '모형은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영가설이 채택되어 연구모형의 적합도에 충족하였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표준적합지수(NFI) 0.992로 기준치(≥ 0.9)를 충족하였고, 비교준적합지수(IFI) 1.00으로 기준치(≥ 0.9)를 충족하였으며, 상대적합지수(CFI)는 1.00으로 기준치(≥ 0.9)를 충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은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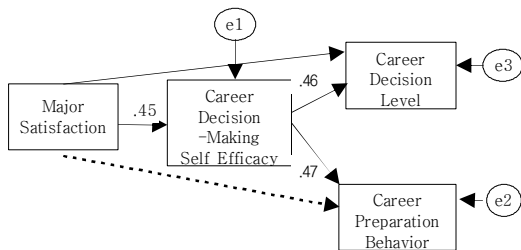


Fig. 2. Modified Structure Mode

이후 수정된 최종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Table 7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절대적합지수 χ^2 값($\chi^2=2.22, df=2$)의 p 값이 .33으로 '모형은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라는 영가설이 채택되어 연구모형의 적합도에 충족하였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표준적합지수(NFI) .99로 기준치(≥ 0.9)를 충족하였으며, 비교준적합지수(IFI)는 1.00으로 기준치(≥ 0.9)를 충족하였으며, 상대적합지수(CFI) 역시 1.00으로 기준치(≥ 0.9)를 충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각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8. Effect Factorization Resul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ajor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45***	-	.45*
Major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 Level	.20***	.21*	.41*
Major Satisfactio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21*	.21*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46***	-	.46*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7***	-	.47*

* : p<0.05 , ** : p<0.01, *** : p<0.001

Table 8과 같다. Fig. 2와 Table 8 모두 표준화값으로 제시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45, p<.001)과 진로결정수준(.20, p<.001)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진로결정수준(.21, p=.01)과 진로준비행동(.21, p=.01)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46, p<.001)과 진로준비행동(.47, 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진로결정수준에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Table 6. Structure Model's Goodness-of-Fit

Model fit	Absolute fit i			Increment fit index		
	χ^2	RMSEA	GFI	NFI	IFI	CFI
Parameter	p \geq .05	\leq .05	\geq .90	\geq .90	\geq .90	\geq .90
Estimated models	$\chi^2=1.94, df=1, p=.16$.06	1.00	.99	1.00	1.00

Note.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Goodness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able 7. Modification Model's Goodness-of-Fit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Increment fit index		
	χ^2	RMSEA	GFI	NFI	IFI	CFI
Parameter	p \geq .05	\leq .05	\geq .90	\geq .90	\geq .90	\geq .90
Estimated models	$\chi^2=2.22, df=2, p=.33$.02	1.00	.99	1.00	1.00

Note.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Goodness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4. 고찰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광전공 대학생 대상의 연구[12]와 간호전공대학생 대상 연구 결과[28]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대상의 주성재[38]의 연구 결과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각각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역시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모두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46$)이 전공만족도($\beta=.20$)에 비해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고 진로결정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수준이 더욱 명확해지며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공학전공 대학생의 경우에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간호대 학생[22], 스포츠산업경영 전공 대학생의 경우에도 전공만족도[30]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뷰티전공대학생[41] 대상의 연구 결과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

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한 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행정 전공의 경우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행동으로 학년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각종 자격증 및 국가고시 면허가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보건행정 전공 학생은 전공만족도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정해 주는 대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므로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호학 전공 대학생 대상 연구의 경우[31] 학업만족, 대인만족, 진로만족, 적성만족을 전공만족의 하위변인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하위변인 중 적성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공이 적성에 맞을수록 졸업 후 전공과 관련한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이후에 동일한 변인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20], 비서학전공 전문대생[21], 실용음악전공대학생[32]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연구결과를 볼 때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와 학생이 입학초기부터 꾸준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수업 및 학교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 진로에 대한 탐색 및 확실한 목표 설정과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학 중인 학과 선배와의 튜터링을 통한 전공과목에 대한 어려움 해결 및 취업한 선배 특강 등의 멘토링을 통해 진로의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학교와 학교 차원의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와 관련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며 진로에 대한 탐색 및 목표 설정과 준비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준비행동은 학년과 졸업반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각각 정(+)적 상관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수준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진로준비행동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생 본인, 교수, 학교 모두 협력하고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계획 및 개발과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 전체에 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와 매개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변인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후속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 변인의 측정에 일반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앞으로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E. Y. Chen, Y. H. Nam & H. J. Kweon.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areer Education Exper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with Major in Health Administration.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19(3), 166-182. DOI: 10.4332/KJHPA.2009.19.3.166
- [2] M. R. Jeon & B. H. Kim. (2015).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2), 445-461.
- [3] K. H. Kim & H. Y. Min. (2006). A Study on Related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Coping Behavior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3), 73-82.
- [4] Y. H. Kim & H. An. (2012). The literature review on career development in Korean college students based on social-cognitive career perspectiv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4), 1-18.
- [5] H. Ch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6]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6(1), 83-91. DOI: 10.5977/JKASNE.2010.16.1.083
- [7] T. H. Kim & K. R. Chang. (2007). Impacts of Academic Major and Department Satisfaction, and Perceived Prestige of University and Intention to Pursuit Major Related Career among Sport Related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1, 69-78.
- [8] J. L. Holland.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9] J. H. Yoon. (2013). A Study on Relationship with Selection Factors of Tourism Major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Attitude and Achievement. *J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25(4), 239-257
- [10] S. C. Jang. (2003). *A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nalysis of Related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on Kuk University. Seoul.
- [11] S. H. Jin & E. M. Sung.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ith College Students in Engineer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1-18.
- [12] K. M. Kim.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Determining Factors for Selecting Tourism Major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Seoul.
- [13]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 27-36. DOI: 10.5977/jkasne.2014.20.1.27
- [14]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84, 191-215.
- [15]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H. Freeman and Co.
- [16] G. Hackett & N. E. Betz.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 Consult Clin Psychol*, 61, 215-220.
- [17] K. M. Taylor & N. E.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Vocat Behav*, 22, 63-81, 1983.
- [18] N. E. Betz & G. Hackett. (1986).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 Soc Clin Psychol*, 4, 279-289.
- [19] J. M. Chartrand, C. C. Camp & K. L. McFadden. (1992). Predicting academic adjustment and career indecision: A comparison of self-efficacy, interest congruence and commi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293-300
- [20] M. J. Chung & I. H. Park. (2015).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27(1), 213-232.
- [21] B. R. Seo.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22] J. W. Lee, N. Y. Lee & Y. S. Eo. (2018).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11-320. DOI:10.5762/KAIS.2018.19.1.311
- [23] B.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Doctor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4] J. U. Kim & S. S. Park. (2011).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4), 209-229.
- [25] S. G. Park & Y. H. Park. (2002). A Study o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141-160.
- [26] E. J. Kim.(2011).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 master's thesis, 2011.
- [27] B. H.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9(1), 311-333.
- [28] Y. M. Kim, S. C. Kang, K. N. Kwon, Y. J. Seo, S. H. Sung, J. R. Son, H. A. Son, Y. R. Sin & E. H. Kim. (2018). Correlation Between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6(1), 1434-1442. DOI: <http://doi.org/10.15205/kschs.2018.03.31.1434>
- [29] T. J. Cheon. (2015).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medical tourism related department on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 Yang University. Taejeon.
- [30] S. G. An. (2018).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in Sport Industry & Sport Management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Seoul.
- [31] K. H. Baek & K. H. Y00. (2011).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group of security major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29, 115-137.
- [32] E. J. Yang. (2017).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lied Music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Flow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4), 55-74.
- [33] S. K. Kim, R. U. Kang, E. Y. Kim, J. E. Moon, J. H. Jang & E. S. Jung(2018).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18(2), 239-251. DOI: 10.13065/jksdh.2018.18.02.239
- [34] Y. J. Lee & J. H. Shin, (2012).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Further Career Choice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2), 725-733.
DOI: 10.5762/KAIS.2012.13.2.725

- [35] K. W. Jang. (2012).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Compromise Patterns, Career Matur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36] K. H. Lee & H. J. Lee.(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 [37] H. J. Kho. (199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38] S. J. Ju.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Job prepar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 Ju University. Jeonju.
- [39] J. H. Jin. (2010). *Impact of the self-efficacy,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 [40] S. H. Kang.(2010).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to the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3), 291-307.
- [41] H. J. Seok & J. S. Lee. (2016).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School.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12(4), 357-366. DOI: 10.15810/jic.2016.12.4.009

이 현 숙(Hyun-Suk Lee)

【경력】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의무기록

· E-Mail : taihun02@naver.com